

COMMENT Industry

SK securities



Analyst

이지훈

sa75you@sk.com

02-3773-8880

기계(방산업종)

국내 방산업체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반가운 소식일까?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둔 비용의 증가, 분담비율의 상승은 국방비중에서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비 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방산업체 주가상승 가능성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그 여파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연결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국방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미 육군을 54만명, 해병대를 36개 대대로, 공군 전투기를 1,200대로 증가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방비 증가를 위해 2013년 시작된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미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그 여파가 국내로 옮겨올 수는 있다. 주한 미군 철수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 가능성이다.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율은 현재 50%수준으로 향후 상향 가능성 높음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운영비용)은 2조원 가량이며 한국의 분담금은 약 9,400억 원으로 약 50%이다. 미군 부대 이전비용의 분담율은 92%를 상회하고 금액은 1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분담비율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방예산 절감을 위해 전작권전권의 조기 이양(기존 결정은 2020년대 중반 예정)을 추진하고 분담비율을 추가로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력 개선비에는 부정적 영향

사드배치에 따른 운영비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주둔 비용의 증가, 분담비율의 상승은 결국 국방비에서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감소(전력운영비의 절감은 한계가 있음)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비 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전일 방산업체의 주가상승은 계속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주요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047810): T-50 계열 훈련기 및 경공격기, KUH 계열 한국형 헬기

한화테크윈(012450): K9 자주포, T-50 계열 엔진

LIG넥스원(079550): 천궁, 현궁, 천마와 같은 유도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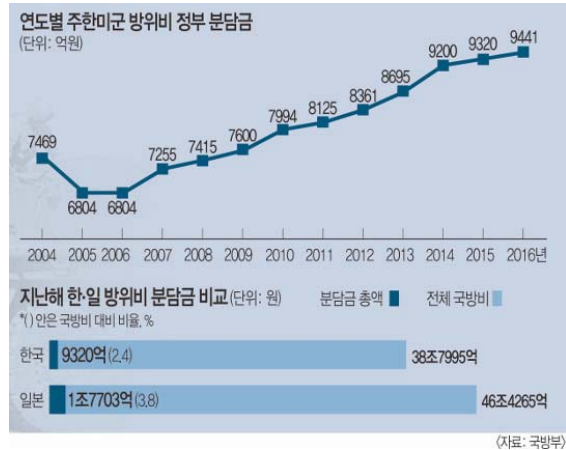
현대로템(064350): K2 전차

휴니드(005870): 대용량통신체계

아이쓰리시스템(214430): 적외선 검출기

S&T중공업(003570): 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변속기, 총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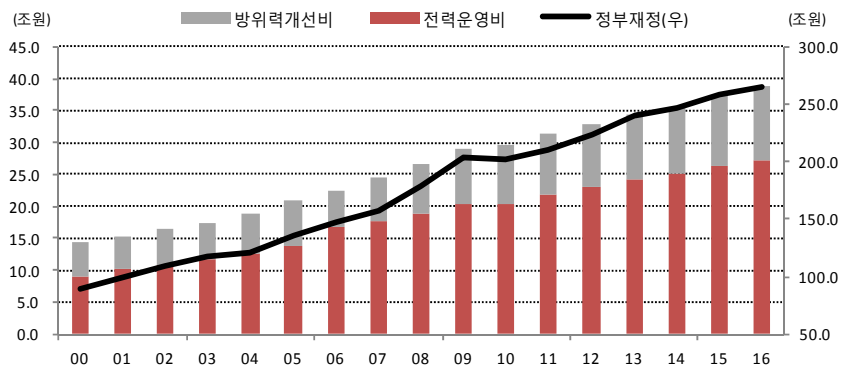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추이



자료: 국방부, 언론자료

정부재정과 국방비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국방부

Compliance Notice

- 작성자(이지훈)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6개월 기준) 25%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